

회화나무는 왜 '학자수'로 불렸나



회화나무와 선비문화

강판권 지음

역사는 시간이라는 날출과 공간이라는 씨줄로 이어진다. 달리 말하면 역사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는 대부분 시간에 대한 기록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나무라는 생명체를 매개로 역사를 바라보는 책이 출간됐다. 나무를 비롯한 절대다수의 생명체는 공간을 통해서만 존재가 가능하다. 나무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공간을 중심으로 두고 시간의 흐름을 서술한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계명대 사회학과 강판권 교수가 펴낸 '회화나무와 선비문화'는 한국과 중국 유교문화의 상징인 회화나무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탐구한 책이다. 중국과 한국의 주요 유적지에 심겨져 있는 회화나무를 답사하고 해설을 덧붙여 회화나무가 왜 선비의 나무 '학자수'로 불리는지, 역사적으로 어떤 역할과 상징을 맡아왔는지를 조명한다.

저자는 "회화나무에 관심을 가진 것은 나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과 회화나무의 관계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 살고 있는 회화나무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중국과 우리나라 전역의 회화나무를 만나면서 한 그루의 나무가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고 밝힌다.

회화나무가 학자수로 불리게 된 이유는 고대 신분사회에서 비롯됐다. 주나라 때 사대부 계층의 무덤에 심은 뒤로 그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중국 과거시험 중 진사시험을 '고추(機秋)'라 불렀는데, 그 시기가 음력 7월 회화나무에 꽃이 피는 시기와 같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합격을 기원하는 뜻으로 회화나무를 심었다는 것이다. 이런 관행은 송나라 때까지 이어져 회화나무는 사대부는 물론 학자와 선비를 상징하는 나무가 됐다.

저자는 조선의 왕들이 거처한 창덕궁에 회화나무가 살고 있는 것은 주나라 때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곳의 천연기념물 회화나무는 조선의 지배이념이 성리학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선비들의 공간이었던 서원은 상징물로 나무를 심었다. 퇴계 이황을 모신 도산서원의 경우 회화나무가 심어져 있다. 구지 폐 1000원권 뒷면에 실린 도산서원 도안에는 회화나무가 선명히 그려져 있다.

저자는 회화나무를 통해 살을 배우는 태도를 견지한다. 나무의 모양을 보며 그 나무가 살아온 지긋한 세월을 짐작하는 시선에는 인자함이 담겨 있다.

<문학동네·1만7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정보의 홍수시대 미디어 연구자 4인의 체험기



미디어 숲에서 나를 돌아보다

이창근 지음

미디어 학자이자 문화비평가 마셜 매클루언은 "미디어는 메시지다"라고 했다. 의사결정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미디어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오늘날 미디어는 대중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오늘날의 사회를 '매스미디어' 사회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특히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는 정보의 홍수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엄청난 정보가 흘러다닌다. 디지털 속도는 가히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빨라 수용자들은 새로운 정보에 적응하기 바쁘다.

이창근, 강준만, 조흥, 원용진은 미디어 학자다. 이들이 공통의 전공인 매스미디

어에 대한 각자의 체험과 기억을 풀어냈다. '미디어 숲에서 나를 돌아보다'에는 저자들이 관심을 매체에 대한 삶의 궤적과 체험이 묻어 있다. 한마디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4인의 생생한 체험기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1980년대 초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대학에서 처음 만나 강의를 같이 들었고, 밖에서는 유학생으로 동고동락했다.

이창근 교수는 지난 반세기 동안 미디어의 대변역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주목한다. 정치, 경제적 변동이 삶을 관통한 한 흐름이었다면, 같은 시기에 전개된 미디어의 대변역은 행동양식의 변화를 견인했다. 강준만 교수는 미국 유티시절 동네 신문부터 대학신문까지 모두 쟁겨놓았다. 귀국해서는 정치적 성명서와 전단지까지 모을 정도로 자료 수집에 신경을 쏟았다. 조흥 교수와 원용진 교수는 각각 오디오와 문화연구에 관한 체험을 기술했다.

<인물과사상사·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인구·경제 ... 두려운 미래 아닌 희망의 기회 찾아라

명견만리

KBS 명견만리 제작진 엮음



"여기 충격적인 22세기 대한민국 시나리오가 있다. 2100년, 5000만이 넘었던 인구는 반 토막이 난다. 인구 감소는 서울 지하철 노선도 바꿔놓아 9개 노선 중 4개가 폐선된다. (중략) 2400년, 한때 대한민국 제2의 도시였던 부산에서는 탈출 행렬이 일어난다. 이들은 도시 기능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경기권으로 이주한다. 2413년, 텅 빈 도시에 마지막 아기 울음소리만 들린다. 부산 성장을 상징했던 영도다리는 홍물로 변한다. 2505년, 천만 인구를 자랑했던 수도 서울에 마지막 시민이 태어난다. 그리고 2750년,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라가 된다." (본문 중에서)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저성장고령화 시대, 인공지능과 같은 급격한 기술 발전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 다양한 미디어에서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이슈들과 지식들을 알다시피 보도한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는 인구정책은 타이밍이라는 말처럼, 기회가 있을 때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인물루멘셜 제공>

그러나 인류의 지식 총량은 급속히 늘어난 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가 전개되고 있다. 미래학자 버크민스터 풀러의 '지식 두 배 곡선'에 따르면 인류의 지식 총량은 100년마다 두 배씩 증가해왔다. 현재는 13개월로 그 주기가 단축됐으며 2030년에는 3일마다 두 배씩 늘어난다고 한다.

변화무쌍한 시대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도 어렵게 만든다. 대중과 집단지성의 힘을 앞세워 변화의 방향을 주목한 프로그램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KBS 다큐멘터리 강연프로그램 '명견만리'가 바로 그것. 금요일 밤 10시 편성에도 드물게 7.6%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과 불안 그리고 대안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방증한

다. 지금까지 김난도, 김영란, 최재천과 같은 전문가부터 서태지, 성석제, 장진 등 문화계 인사까지 두루 출연했다.

이번에 책으로 발간된 '명견만리'는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중의 지혜를 함께 모아 만든 지식 콘텐츠다. 명견만리(明見萬里)는 말 그대로 '만 리 앞을 내다본다'는 뜻으로 관찰력이나 판단력이 매우 정확하고 뛰어난'을 일컫는다.

책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명견만리'는 각종 트렌드 속에 숨어 있는 변화의 방향성에 초점을 맞춘다. 정현모 팀장 프로듀서는 "트렌드는 한때의 유행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 방향과 관련되어 있다"며 "때로는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의미심장한 전조와 같다"고 강조한다.

먼저 장래에 닥쳐올 인구쇼크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견해는 이렇다. 인구 감소의 문제의 열쇠를 쥔 청년들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어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0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실업률이 1% 오르면 결혼은 330건 줄어든다. 청년 고용과 인구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향후 5년간은 700만 명이 은퇴를 하는 시기다. 거대한 인구 집단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폭탄'이 우리 사회에 미칠 충격은 만만치 않다. 책은 베이붐 세대는 자신들만의 정체성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왔다고 평가한다. 사회 변화를 주도하며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부동산 버블 등 살아남기 위해 자초한 악순환의 고리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후세대에게 그 악순환의 고리를 넘겨주지 말고 과감히 끊고 다시 한번 새로운 미래를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기업이 성장해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기술발전은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해 버린다. 과연 '노동의 종말'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을 집중해야 할 때라는 답을 내놓는다. "대체 가능하고 표준화된 능력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었다면, 그렇지 않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지금의 답이다."

<인물루멘셜·1만5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모든 게 망쳐진' 세계가 우리가 사는 21세기



문지문학상 수상집 창백한 말

정지돈 외 지음

문학과지성사가 지난 2010년부터 제정 운영하고 있는 '문지문학상'이 올해로 6회를 맞이했다. 문지문학상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달의 소설'을 선정, 그 결과를 공개하고 이들을 문지문학상의 후보작으로 선정한다.

'제6회 문지문학상 수상작품집'에는 수상작 정지돈의 '창백한 말'을 포함해 모두 10편의 소설이 실렸다. 이상우, 김

영지, 양선형, 홍희정, 백수린, 김술, 정영수, 박민정, 오한기의 작품은 새로운 세대가 일궈낸 미학적 성취로 평가받을 만큼 다양한 실험적 소설이다.

수상작 정지돈의 '창백한 말'은 '장'이라는 인물을, 그의 일기를 통해 들여다보는 이야기이다. '장'의 친구인 '나'가 서술자로 등장해, '장'이라는 인물을 찾는 형식으로 돼 있다. 장은 설명 없이는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다른 세계에 사는 듯해 보인다. 무한 가능성의 세계, 즉 무엇이든 바꿀 수 있던 세계가 장이 존재하는 시대이다. 모든 것이 달라진, 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게 망쳐진' 세계가 곧 21세기인 우리가 사는 시대인 것이다. <문학과지성사·1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빈손으로 태어나 거부가 된 사람들의 '생각법'



한국의 자수성가 부자들

윤선희 지음

"똑같은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30년 후 어떤 이는 수천억 원의 거부가 되고 어떤 이는 가난에 허덕인다. 차이점은 단 하나, 그들의 생각법에 있었다."

20년 경력의 경제전문기자 윤선희가 한국의 400대 부자들을 심층분석해서 얻어낸 '부(富)를 만드는 8가지 생각의 법칙'을 담은 책 '한국의 자수성가 부자들'을 펴냈다.

책은 지난 2015년 9월, 대기업 경영정보 분석회사 재벌닷컴이 주식과 배당·보수, 부동산 등 보유 자산가치를 평가해 '대한민국 부호 400명'을 선정해 발표한 통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살펴봄으로써 평범한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의 길을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그들의 열정과 도전정신, 궁극적 사고방식이야말로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선인의 지혜가 됨을 깨닫게 해준다.

<한스미디어·1만38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옥상 방수 단열 한번시공으로 끝!

강철로 만든 스틸단열방수가 정답

하루종일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옥상 단열과 방수는 중요한 건물관리입니다. 동파, 누수, 균열방지에는 스틸단열방수 판넬이 가장 적합합니다. 칠하고 붙이고 씌우고 다해 봐도 오래 가지 않는 물새는 옥상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런 고민 단열방수판넬 시공 한번으로 끝!

부식, 미끄러짐, 물새를 없습니다. 페인트식 바닥 부착형이 아닙니다. 본사에서 개발한 스틸단열 방수 판넬은 불소수지에 근접하는 내후성과 내식성이 우수한 강철판넬이며 옥상 바닥이 패이고, 균열되어 있어도 시공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반영구적 신공법 특허방수입니다.**

1599-7652

NAVER **연합건설** 검색

지역 대리점 모집

자재구입 보증금 2천만원 가능하신분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
녀 **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식01** **대산프리모** **가발**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신기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대산프리모가발